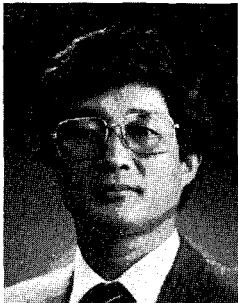


곡물도입 1,000만톤시대



유 상 철

1987년 우리나라의 연간 곡물도입량이 1천만톤을 돌파하였다. 정확히 말하면 제분용 소맥 211만4천톤, 사료용 소맥 209만4천톤, 사료용 옥수수 354만톤, 공업용 옥수수 133만5천톤, 대두 108만 1천톤, 기타 2만7천톤 등 총 1천19만2천톤의 곡물이 도입된 것이다. 이중 사료용 곡물이 56%를 차지하여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7년의 도입량은 86년의 850만톤에 비하여 무려 20%의 증가를 보인 것이다. 이 물량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11억불에 달하는데 이는 원유, 석탄, 원목 등과 함께 우리 경제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원자재이다.

곡물도입량 (단위 1000톤)	1986		1987	
	1986	1987	1986	1987
소맥	1,953	2,115		
사료용소맥	1,442	2,094		
사료용옥수수	2,728	3,540		
공업용옥수수	942	1,335		

대두	1,077	1,081
기타	361	27
계	8,503	10,192

자료: 자체조사

우리나라 곡물도입의 역사는 해방 후 미공법480호에 의한 소맥과 쌀, 보리도입이 주종을 이루면서 1950년대 60년대를 거쳐 1967년에 소맥 90만톤, 쌀 11만톤, 옥수수 및 콩 각3만톤으로 처음 100만톤을 넘어선 이래 1973년 300만톤 1979년 500만톤으로 늘어났다.

1980년대에 와서는 연간 총도입량 700만톤선에서 서서히 증가하다가 1986년 처음으로 800만톤을 넘어서고 다시 1년만에 1천만톤을 돌파하게 된 것이다.

도입량의 변동추세를 보면 제분용 소맥은 80년대에 연간 200만톤 수준으로 일정한 양을 유지하고 쌀과 보리는 1983년 이후 자급자족을 하게되어 도입이 없어진 반면 사료

용 곡물과 공업용 옥수수 및 식용 유·대두박용 대두의 도입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도입국도 과거 미국 일변도 이던 것이 이제는 미국을 필두로 캐나다, 호주, EEC, 중공, 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아프리카 등 전세계를 망라하고 있다.

이렇게 도입되는 곡물은 주로 인천항과 부산항을 통해서 들어온다. 그외에도 울산, 진해, 목포, 군산을 통하기도 한다. 인천항은 1987년 전체 곡물도입량의 72.2%인 7백35만4천톤을 취급하였다. 부산항은 142만톤으로 13.9% 울산은 86만5천톤으로 8.5%이고 기타항이 나머지 5.4%를 차지하고 있다.

곡물도입이 늘어나는 것은 협소한 경지면적과 인구증가, 소득 증대에 따른 축산물소비와 가공식품 소비 증가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곡물 총생산량이 750만톤인 점을 생각하면 1천만톤 수입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식량자급률이 점차 떨어지는데서 오는 불안, 식량이 무기화되었을 때 입을 타격을 생각하면 곡물도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책임과 의무가 중대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곡물도입은 곡물 구매기관, 관련 공무원, 공급자, 대리점, 해운, 은행,

구매계약은 합리적으로 되었는지, 불합리한 용선계약을 해결하지는 않았는지, 선적수량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품질이 보장되는지, 항구사정에 부적합한 선박을 배선하지는 않았는지, 용도에 부적합한 품질은 아니었는지, 선적기간이 엄수되어

곡물도입이 늘어나는 것은 협소한 경지면적과 인구증가, 소득 증대에 따른 축산물소비와 가공식품 소비 증가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 가공공장, 실수요자, 하역회사, 운송회사 등 많은 관련자들이 유기적인 연결과 협조가 필요한 복합적인 업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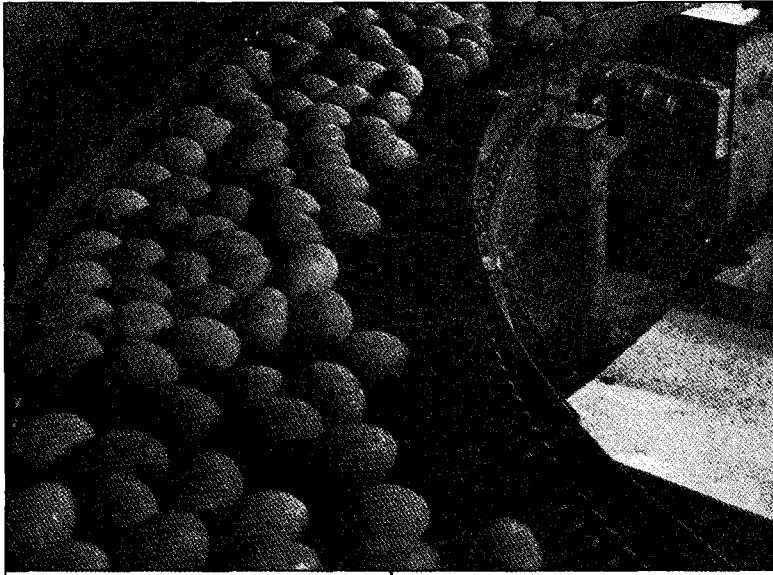
1천만톤 도입 시대를 맞이하여 한번쯤 제 단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곡물이 외국의 생산자 손을 떠나 최종소비자에 도착할 때까지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나의 문제점을 다음 단계로 넘겨버릴 소지가 있다.

적기에 공급을 하게 되는지, 보관중의 품질관리에는 문제가 없는지, 운송중에 감량은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는지, 항해중에 손상되지는 않는지, 등등 몇 가지만 생각해 보아도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곡물도입에 중요하고 복잡한 업무이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협조를 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기 위해 두가지 제안을 하는 바이다.

첫째 제안은 관련자들의 조직적인 곡물연구모임의 필요성이다. 수출국의 생산, 수요공급, 정책, 곡물 시장경제, 가격예측, 유통구조, 운송체계, 선물시장, 곡물메이저, 구매계약, 금융, 보험, 용선, 하역, 보관, 품질검사 및 관리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기적인 연구모임이나 세미나 등을 자주 가져야 한다.

아울러 제안하는 것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1년에 한번쯤 관계자들이 전부 모여서 대 간담회를 개최하자는 것이다. 이간담회의 기





본원칙은 뇌풍규칙(腦風規則)의 활용이다. 뇌풍규칙은 영어로 Brain Storming이라고 하는 독특한 그룹 토의방식의 일종인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데 획기적인 방법으로 통용되고 있다.

미국의 버팔로대학 부학장이었던 알렉스 오스본박사의 창안인 이 뇌풍규칙의 기본원칙은 참석자의 평등이다. 이 모임에서는 신분의 상하, 나이, 성별, 직책, 계약상의 종속관계에 따른 차이가 일체 없고 자유분방한 분위기에서 누구나 동등한 자격으로 의견을 펴기 때문에 상대방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또 한가지 중요한 원칙은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은 것이다. 비록 실현 불가능한 아이디어라도 마음놓고 이야기한다. 발언내용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판단을 하지 않는다. 얼마전 대호평을 받았던 농정토론회가 이러한 토의의 일종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모임은 어떤 결론을 얻기위하여 한다기 보다는 이야기를 나누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두번째 제안은 전문인력의 양성과 활용이다. 어느 종합상사의 곡물담당 책임자가 하소연하기를 자기는 이 곡물부서에서 언제까지 근무하게 될지 모른다고 한다. 이 부서에 오기전에는 원목수입부서에 있었고 지금도 곡물과 전혀 관련이 없는 수산물을 동시에 취급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유수한 종합상사의 유능한 인재가 이 분야를 좀 알만하면 다른 곳으로 보내진다. 당해년도 사업실적에 따라서 어느 부서로 가게 될지 아직 미지수이다. 물론 우리나라 종합상사가 다 이런 것은 아니다.

필자가 년전에 곡물 마케팅연수를 받으면서 만났던 일본 C.I.TOH 상사의 마쓰오 후카다라는 젊은 친구는 연수를 마치고도 1년동안 자기계획에 따라 미국 전역의 곡물생산지대 시카고, 캔사스 등 곡물거래소, 곡물상, 수출싸일로, 연구소 등 마음대로 다니면서 정보를 입수하고 사람도 만나고 직접 현장에서 부딪치면서 지내는 독특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1년 후 그 친구는

“
곡물시장을 정확한 정보분석력과 오랜 거래경험이 필수적이므로 단기간에 욕심을 내는 방안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

대단한 자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곡물사업에 몸담은 것이다.

「당신 혹시 다른 부서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니 대답은 명쾌하였다.

「나는 평생 이 분야에 종사합니다」

우리도 구매방법을 개선해야한다. 선물시장을 활용하여야 한다. 혹은 곡물의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요원을 파견하여야 한다는 등 여러가지 제안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이때 이에 합당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곡물시장을 정확한 정보분석력과 오랜 거래경험이 필수적이므로 단기간에 욕심을 내는 방안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해마다 식량의 자급도가 떨어져 곡물도입량은 계속 증가할 것이고 국제경쟁은 점점 치열해지는 이때 국제시장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보다 유리한 원료확보책을 강구하는 것은 인재의 양성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양재**